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4>



마음이라는 화가

불교는 다른 어떤 철학 사상이나 종교보다도 마음에 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다. 불교 공부

하얀 색을 즐겨 입었다는 것은 마음이 하얗고 깨끗한 것을 지향한 것이다. 반면에 까마귀를

부처님은 계속하여 마음을 그림에 비유하고 있다. "마땅히 마음에 대해서 잘 사유하고 관찰

마음이 그려진 그림은 단지 단순한 그림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심상(心象, mental image), 즉

마음은 감정·행동·면역 체계에 큰 영향 '아름다운 心象' 원하면 탐진치 먼저 버려야

신의 인격을 결정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

<잡아함경>의 '무지경'에서 부처님은 '몸은 마음의 반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음이

에 도둑놈 하나를 그려 놓으면 이 도둑놈은 다른 도둑놈을 불러들인다. 도둑놈들이 서로 모의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그려진 그림을 수시로 꺼내어 채색한다. 아름다운 그림도 있지만



지상 백고좌

내 마음 맑아지면



월야산과 치와산이 대웅전 아래로 겹겹이 펼쳐진 제천 감악산 백련사. 수해로 무너진 백련사를 복원불사한 후 지금까지 26년간 주석하고 있는 담월 스님은 "불언(佛禪)의 지중함을

담월 스님

(제천 백련사 주지)

서구사상·물질주의 가치관, 한계에 봉착

이타행·환경·통일 등 시대 요구 깨달아야

해발 850m, 대관령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자리 잡고 있는 총북 제천 감악산 백련사 가는 길. 산이 깊

어느덧 백련사에 다다랐다. 지난 3월 시작한 불사가 한창이다. 오사채 한 돌을 짓는 불사였다. 이곳 백련사는 원래 신라시대의 고찰이었으나, 1976

"불사가 한창입니다. 오사채 이름은 지었습니까?" "불사가 한창입니다. 오사채 이름은 지었습니까?"

취잖아요.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무상반

"산과 계곡이 너무 맑아 오르는 길에 잠시 계곡 물소리를 듣고 왔다"고 다시 여쭙자, "그럼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네요. 내가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으니 내가 곧 산이고 계곡이고, 계곡 물 소리가 곧 내 소리지 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병든 늙은

스님의 말씀에 무어라 답하지 못하는 기자의 우매함을 눈치 채셨는지, 스님은 오늘날 불자의 사명과 역할로 화제를 돌렸다.

"오늘날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은 무엇일까요? 불자의 사명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마음과 경계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근본을 밝혀 맑은 거울과 같은 자성의 본체를 얻는 것이 첫째 문제요,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경계, 곧 내 몸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어떻

게 해야 바르고 청정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만 해결하게 되면 그가 곧 부처요 대성자(大聖者)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마음 하나만 맑아지면 앞에 나타나는 경계, 곧 세계는 청정세계가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시비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시비의 세상으로 보일 것이고 약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약한 세상으로 보일 것이며 망상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망상의 세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 가운데 12선악과 망상분별이 끊어지고 탐욕이 적어지면 그 만큼 내 눈앞에 나타나는 세상은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 곧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청정한 정토세계인 것입니다. 육조 스님께서는 마음이 청토를 일으키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니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불자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쓰림 식이러 이등이 간편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 댐는 다이, 개소 등등 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염주인 주성반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한가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특품으로 반입, 조립 시범하며 화제와 선동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기와 잡귀들이 보기에 해도 도망쳐서 악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벽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힘과 지력으로 27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으실다.

이곳이 극락정토

좁고 소박한 방에서 서도 삼매

기자가 된 담월 스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소용없어요.”

지난 2001년 위 절단 수술을 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담월 스님은 “웃이라도 입고 있으니 사람 같아 보이지, 사실 뼈와 가죽 밖에 안 남았다”면서도 환히 웃어 보이신다.

1978년 복원불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 스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로도 유명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린 후 참선과 경전공부를 한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에는 1시간 정도 산행을 하며 건강을 추스른다. 나머지 오전 시간은 붓글씨를 쓰며 보낸다. 신도들이 자신이 쓴 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 시작하게 된 글쓰기는 스님이

‘이 생애 마지막으로 하는 포교’인 셈이다. 스님의 방은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자리와 책상, 붓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전부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건 공부하는데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예 방에 들어질 않았다. 현재 불사 중인 요사체에 마련될 스님의 방도 지금의 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방이 크다고 수행이 잘 되는 건 아니잖소. 이만하면 극락이지.”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3년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45년 서울 대원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50년 해인사 강원도 법사사 강원에서 강사를 지낸 후 속속 선종사, 강성 강봉사, 서울 칠보사 주지를 거쳐 78년부터 제천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 1천6백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교는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교는 민족의 종교이자 호국의 종교로 승화해 이 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결을 이어 온 전통적 종교인 것입니다. 민족정기 함양의 근간이 되었고 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민족문화의 모체로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국가가 위협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신라와 고려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는 나라의 성쇠와 숨결을 함께 해 온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불교도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의 국가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타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만 불

교도가 다같이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관습을 탈피하고 보다 참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으로는 합리적인 불교 현대화 방안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호국사상을 함양해서 사회정화와 국민정신 순화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압도해왔던 서구사상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산업화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숲thin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성 타락은 급기야 전세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의 병폐로 지구와 생물이 파괴 오염되어 존망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인류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 냉엄하게 우리 자신과 세계를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21세기의 인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참된 삶의 좌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가 요청하는 새로운 인간상, 이타적으로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정의구현,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도덕성 회복과 환경보호, 민족통일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아가 세계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

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인격자임을 깨달아 신행을 스스로 혁신하는 참된 대승보살이 됩시다. 천만 불교도가 다 같이 대승보살로 거듭난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중흥을 위하고 불자에게 주어질 지상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원자게 정진해야 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수행만이 ‘불자의 길’이라는 뜻으로 스님의 말씀을 새겨본다.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하고 올바른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가르침을 믿으면 성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戒)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는 수행의 근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막행막시하며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과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인과를 믿는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경건한 생활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불연(佛緣)을 맺기 위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여고 9살부터 인근에 사는 장돌뱅이를 따라 전국을 떠돌았어요. 그 땐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중 한 가지라도 만족를 느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어요.



담월 스님은 직접 쓴 ‘전법도생(傳法度生) 부처님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라’는 뜻의 붓글씨를 보여주었다. 글쓰기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스님의 또 다른 포교활동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불연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연이 될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잠시 맑은 하늘에 해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하늘, 한 줄기 햇살, 한참동안 말씀이 없던 스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신다.

“항상 이렇게만 깨어 있어야 좋겠지요?”
정리=여수령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영 스님(1)

아침 여섯시. 오늘은 도영 포교원장스님을 모시고 합천 해인사로 출장을 가는 날이다. 약속된 장소로 스님을 모시러 가야하니 서둘러야 한다. 사찰에서 아침 여섯시면 빠른 시간이 아니지만 직장인 처지에서 보면 이른 시간이다. 포교원으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직장인 개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직책상 원장스님을 모시고 출장을 다녀야 할 때가 있다. 그러자면 미리 약속된 장소에 도착해서 어른을 기다려야 되는 데, 오히려 항상 원장스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달게 하기 위한 배려이다. 나는 항상 서두른다고 반감을 떨어도 매양 지각이다. 게으름과 굶뎠음으로 어른을 불편하게 모시지는 않겠지 마번 걱정이다.



그림·문병성

이번에도 부지런히 서두른다고 했지만 또 늦었다. 항상 그랬듯 오늘도 도영 스님은 큰길에서 타는 오는 쪽을 향해 바라보고 서 계셨다.

서울을 벗어나면서 스님은 쟁겨온 봉지에서 과일과 음료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아침도 못 먹었을 것이니 이것이라도 먹어봐.” 나는 사실 약속시간도 못 지켜 스님께서 꾸중이나 하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웬 과일과 음료수가 저 주시단 말인가? 말 그대로 송구했다.

도영 스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다. 내가 과일과 음료수를 받아서가 아니라 약사가들이 어른을 모시게 되면 긴식 같은 것은 아랫사람이 준비하는 게 보편적 정서다. 또 휴게소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조금 늦게 식당에 들어가면 스님은 벌써 내 밥까지 식탁에 놓고 기다려도 계신다. 뒷사람에게 잡히는 쉬워도 아랫사람에게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들다.

도영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율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부안, 김제의 금산사 주지 소임을 오랫동안 보셨다. 스님이 금산사 주지로 계실 때의 전북불교는 밖에서 보기에조차 활발했다. 스님은 기독교의 교세와 교당이 동양에서 규모

가 몇 번째 크기로 유명한 전주시 도심에 지상 4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했다. 불자들의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서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한글로 알기 쉽고, 암송하기 쉽도록 번역해서 불자들에게 배포했다. 스님을 만나보면 부처님 법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전법입념으로 오로지 포교에 대한 열정의 말씀뿐이다.

그 의지가 말사 주지 임명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본사 주지로 계실때 스님이 말사 주지를 임명할 때는 그 인사기준을 포교에 대한 원력과 능력으로 정하곤 하셨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운영과 포교에 대한 능력에 상관없이 문종에서도 법랍이 많은 스님들이 말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용납하지 않았다. 말사주지에는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스님을 임명했다. 그러다보니 지역포교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었다.

스님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쏟았다. 스님 연배의 스님들은 대부분 선종에서 화두를 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법거람을 나누는 일화가

포교열정 식을 줄 몰라 인사, 능력위주로 철저

자랑스럽고, 세상은는 되도록 멀리하는 것이 수행자다운 모습이라고도 인식하고 있을 때였다. 그렇지만 도영 스님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는 말씀을 철칙으로 받들고 평생 동안 힘없이 실천하고 있다.

불교는 실천하는데 생명력이 있다. 스님은 포교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도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군인포교에 남이 따르지 못하는 열정을 갖고 계신다. 화주에도 열정이 넘친다. 공심이 아니라면 저렇게 당당할 수도 없고, 당시 절 불사에도 군인 포교처럼 저토록 간절한 열정 내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도영 스님 법랍과 연세 정도면 이전 상좌들 시중을 받고 신도들의 칭송만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는, 신심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앞날을 그려 보았다. 부끄럽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과 열정이 도영 스님의 절반만 따라줘도 우리나라에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더 널리, 알릴지 텐데 하는 아쉬움만 든다.

원장스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면 나까지 저절로 수행이 된 듯한 착각이 든다. 스님께서는 이때까지 살아오신 경험담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폭 폭과 박히기 때문이다. 출장 갈 때 모시고 다니면서 듣는 말씀이 내게는 큰 행운이기도 하다. 스님은 아랫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웃어른도 당신의 평소모습처럼 편하게 모신다. 서울 구의동 영화사 조실사인 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도영 스님의 은사 스님이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성불할 수 있음과 인과율을 굳게 믿어라 막행막식하며 수행 잘 한다는 건 어불성설

육 법 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양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정엄원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봉오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어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정제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던 한자리를 무로모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도록 의술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엔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 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경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어떤 구입하셔도 평생동안 만족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한라를 이용 했기 때문에 **삼계(색식,채반,계면)의 절거준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홍현의)

내자신의건강과내가족의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자립이 돈으로 기를 떠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